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3호 (2020. 8) pp. 3-49
DOI : https://doi.org/10.23842/jif.2020.31.3.001

‘보험금융연구’ 30년 연구 동향 리뷰: 제100호 출간을 기념하며

A Review on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over the Past 30 Years in Commemoration of Publication of the 100th Issue

이 봉 주*·서 대 교**·황 진 태***
Bongjoo Lee·Daigyo Seo·Jintae Hwang

본고는 ‘보험금융연구’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30여 년에 걸쳐 게재된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1990년 12월에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총 56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를 12개 주제로 나누어 주요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출범 이후 2000년까지는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환경하에 경영전략, 보험규제 및 감독 분야가 활발히 논의된 주제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보험수요와 보험수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향후 보험경제 분야의 이론적 연구가 좀 더 요망되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보험통계자료 제공 및 연구 인프라 조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국문 색인어: 보험금융연구, 연구 동향 리뷰, 제100호 발간 기념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30600, B050000, B051600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bjlee@khu.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전공 부교수(dkseo@kku.ac.kr), 교신저자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조교수(jhwang@daegu.ac.kr), 공동저자
논문 투고일: 2020. 8. 10, 논문 최종 수정일: 2020. 8. 10, 논문 게재 확정일: 2020. 8. 21

Ⅰ. 서론

본고는 ‘보험금융연구’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고자 기획되었다. 1990년 12월 1일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30여 년이 지나 제100호를 발행하면서 그 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보험금융연구’는 보험금융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06년 1월에 등재학술지로 등록되었고, 2017년 다시 인증됨으로써 보험·금융 분야의 주요 등재학술지로 위치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원래 ‘보험개발연구’라는 명칭으로 1990년 12월에 발행되었다. ‘보험개발연구’는 1989년 12월 1일에 전문보험기관으로 발족한 보험개발원의 기관지이자 전문학술지로서 시작하였다. 보험개발원은 한국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3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를 생·손보를 아우르는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확대한 것이며, 출범 이후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보험개발연구’는 민영보험에 관련한 학술 논문 및 조사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초창기에 하였다.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등재 정책과 함께 편집 방향도 순수 학술지로 전환했으며, 2005년부터는 종합금융화 및 고령화 환경에서 보험과 여타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왔다. 2008년 보험개발원의 보험연구소가 보험연구원으로 독립하여 출범한 이후, 공·사 보험과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보험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다. 주지하듯 보험연구원은 보험금융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에 ‘보험금융연구’로 학술지명을 변경한 이래, 본 지(誌)는 게재 논문의 이론적·방법론적 다양성을 추구해왔다. 특히 해당 학문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창간호 이후 모든 게재논문 목록이 각 호 말미에 제공되고 있다. 투고 편수가 증가됨에 따라 발간 횟수는 2011년부터 연 3회에서 연 4회(2, 5, 8, 11월)로 늘어났다.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30여 년간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 분류와 그 현황 및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Ⅲ장에서는 분류된 연구 주제별로 주요 논문들을 간략하게 리뷰하여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보험금융연구’에 대한 소회와 보험금융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Ⅱ. 연구주제 분류 및 동향

보험의 역사는 기원전 4,000년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상업무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이경룡, 2002). 이와 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보험은 17세기 파스칼의 ‘확률론’과 18세기 베르누이의 ‘대수의 법칙’ 등으로 근대적인 보험이론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생명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보험산업이 자리매김하였으며, 동시에 다양한 보험의 연구주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대보험학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주제는 그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보험금융연구’에 대한 리뷰는 ‘보험학회지’와 ‘리스크관리연구’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보험수요, 보험이론, 보험수리학, 리스크관리, 자산운용, 보험회계, 보험규제 및 감독,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보험영업전략과 판매채널 관리, 손해사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험금융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12월에 10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제1호가 발간되었으며, 이후 2010년까지 매년 3회씩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연 4회 발간되어 왔다. 1990. 12~2020. 7 등 지난 30년간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된 논문 수는 총 566편으로 이들 논문을 대상으로 본고에서 리뷰한다.[1)]

본고에서는 연구 주제 외에 보험종목에 대한 분류도 함께 하였는데, <표 1>에 보험종목별 연구주제에 대한 게재 논문 수도 나타나 있다. 그리고 순수 보험 분야 외에 비보험 금융 및 경영일반에 대한 논문들도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비보험 분야로 분류하였다. 보험 분야에서는 생·손보의 구분이 없는 공통 논문이 145편으로 가장 많아 전체 게재 논문 중 25.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이 109편, 손해보험이 81편으로 나타났다. 이

1) 2020년 7월 기준 제100호에 게재되는 논문 2편도 포함된 수치이다.

들과 별도로 분류된 연금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도 각각 56편, 42편으로 나타났다. 비보험 분야 논문도 79편이 수록되어 전체에서 14.0%를 차지하는 등 ‘보험금융연구’에는 보험 외 다양한 연구 논문들도 함께 게재되었다.

‘보험금융연구’에 수록된 보험 분야의 연구주제별 분류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을 연구한 논문이 77편으로 전체에서 13.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보험이론의 핵심영역인 보험수리학이 67편으로 11.8%를 차지하였으며, 보험규제 및 감독 관련 이슈를 다룬 논문이 66편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그리고 보험산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보험영업과 판매채널 관리가 56편, 보험수요 분야가 46편,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solvency) 관련 분야가 45편으로 나타났다.

〈표 1〉 보험종목 및 연구주제 현황(1990.12~2020.7)

(단위: 개, %)

구분	보험분야								비보험분야	계
	공통	생보	손보	화재	자동차	연금	건강	기타		
보험수요	13	7	3	0	2	15	4	2		46
	2.3	1.2	0.5	0.0	0.4	2.7	0.7	0.4		8.1
보험경제	6	3	2	0	3	0	1	0		15
	1.1	0.5	0.4	0.0	0.5	0.0	0.2	0.0		2.7
보험수리	7	21	15	1	10	9	1	3		67
	1.2	3.7	2.7	0.2	1.8	1.6	0.2	0.5		11.8
리스크관리	17	15	8	0	1	3	0	1		45
	3.0	2.7	1.4	0.0	0.2	0.5	0.0	0.2		8.0
자산운용	6	6	0	0	1	4	0	0		17
	1.1	1.1	0.0	0.0	0.2	0.7	0.0	0.0		3.0
보험회계	6	4	3	0	0	3	0	0		16
	1.1	0.7	0.5	0.0	0.0	0.5	0.0	0.0		2.8
보험규제/감독	21	8	13	0	9	4	1	10		66
	3.7	1.4	2.3	0.0	1.6	0.7	0.2	1.8		11.7
경영전략/의사결정	22	26	18	1	5	1	0	4		77
	3.9	4.6	3.2	0.2	0.9	0.2	0.0	0.7		13.6
보험영업/판매채널	27	15	9	0	4	1	0	0		56
	4.8	2.7	1.6	0.0	0.7	0.2	0.0	0.0		9.9
손해사정	1	0	0	1	6	0	3	0		11
	0.2	0.0	0.0	0.2	1.1	0.0	0.5	0.0		1.9
기타	19	4	10	0	1	16	4	17		71
	3.4	0.7	1.8	0.0	0.2	2.8	0.7	3.0		12.5

									79	79
									14.0	14.0
계	145	109	81	3	42	56	14	37	79	566
	25.6	19.3	14.3	0.5	7.4	9.9	2.5	6.5	14.0	100.0

주: 1) 하단의 수치는 전체 566편의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화재 및 자동차보험은 손보에서 별도로 처리한 것임.
3) 비보험 분야에는 보험 외 금융 및 경영일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됨.

〈표 2〉는 기간별 연구주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주로 예정되었던 보험가격 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등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연구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수리, 보험규제 및 감독,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보험영업전략 및 판매채널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이 중 보험규제 및 감독 관련 연구는 2000~2004년에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변액보험, 건강보험, 퇴직연금 관련 규제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관련 연구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수리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들어 게재논문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2010년 이후 사망률 추정의 새로운 방법론 제시,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 평가,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영업 및 판매채널 관련 분야 연구는 2004년까지 매 기간 동안 두 자릿수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2000~2014년 동안에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2015년 이후부터는 불완전판매, 설계사 이직, 채널 다각화, 고객관계 등의 연구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연구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험수요는 2005년 이후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주로 시장의 상황과 보험계약자의 특성이 보험수요 및 해지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많았다. 또한 비보험 관련 연구도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험금융연구'가 2005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데다 2009년 들어 '보험금융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보험 분야 금융전문가들까지도 독자층으로 흡수하고자 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보험 분야의 연구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효과로 판단된다.

〈표 2〉 기간별 연구주제 현황(1990.12~2020.7)

(단위: 개, %)

구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계
보험분야	보험수요	2	2	2	14	16	10	46
		0.4	0.4	0.4	2.5	2.8	1.8	8.1
	보험경제	4	4	3	3	1	0	15
		0.7	0.7	0.5	0.5	0.2	0.0	2.7
	보험수리	19	9	9	6	13	11	67
		3.4	1.6	1.6	1.1	2.3	1.9	11.8
	리스크관리	13	13	7	4	5	3	45
		2.3	2.3	1.2	0.7	0.9	0.5	8.0
	자산운용	5	5	0	1	2	4	17
		0.9	0.9	0.0	0.2	0.4	0.7	3.0
	보험회계	8	3	2	1	0	2	16
		1.4	0.5	0.4	0.2	0.0	0.4	2.8
	보험규제/감독	15	14	18	12	3	4	66
		2.7	2.5	3.2	2.1	0.5	0.7	11.7
	경영전략/의사결정	29	19	9	14	2	4	77
		5.1	3.4	1.6	2.5	0.4	0.7	13.6
	보험영업/판매채널	11	14	12	4	6	9	56
		1.9	2.5	2.1	0.7	1.1	1.6	9.9
	손해사정	1	0	2	0	6	2	11
		0.2	0.0	0.4	0.0	1.1	0.4	1.9
	기타	26	23	4	6	5	7	71
		4.6	4.1	0.7	1.1	0.9	1.2	12.5
비보험 분야		2	1	5	10	27	34	79
		0.4	0.2	0.9	1.8	4.8	6.0	14.0
계		135	107	73	75	86	90	566
		23.9	18.9	12.9	13.3	15.2	15.9	100.0

주: 1) 하단의 수치는 전체 566편의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비보험 분야에는 보험 외 금융 및 경영일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됨.

Ⅲ. 연구주제별 분류와 주요내용

1. 보험수요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된 보험수요 분야의 연구들 중에서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해지율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은 이

자율과 해지율이 양(+)의 관계를 가지는 이자율가설과 거시경제변수와 해지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긴급자금가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해지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인플레이션 가설이 있다. 최영목·최원(2008)은 특정 경제변수가 해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명보험 종목별 및 회사별 해약률과 실업률,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긴급자금가설과 이자율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재 외(2012)는 변액보험 해지율 연구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시켜 주었다. 동 연구자들은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해약률이 소비자물가지수와 경기선행지수의 충격에 대해 하락하는 반면 실업률에 대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황진태·서대교(2019)는 거시경제변수와 종신보험 해지율 간의 장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국면전환 모형을 이용하여 해지율 연구를 시도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자율가설은 지지하지 못하는 반면 긴급자금가설과 인플레이션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연금상품의 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가입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나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들이 연금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상기 연구들의 공통점은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승훈 외(2006)는 개인연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던 시기에 개인연금 가입자와 가입상태 변화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도함으로서 개인연금에 관한 연구의 폭을 확대시켰다. 동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구일수록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확률이 높은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의 중도탈퇴나 미가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윤경·이남희(2012)는 예비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연금의 수요와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집단의 개인연금의 수요와 적정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도시거주자 집단에 대한 개인연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창선(2020)은 기대수명에 대한 인지적 오류가 개인연금의 가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성의 경우 주관적인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연금 납입금액도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은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에 주관적 기대수명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수요 연구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정보의 접근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개인 소득이나 정보의 획득정도, 개인연금의 유무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 성향 등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있다. 김재현·김헌수(2006)에 따르면 소비자가 충분한 상품 정보를 획득하였을 경우 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창우(2010)는 민영건강보험과 개인연금 간의 선택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개인연금과 민영건강보험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완재 성격의 민영 건강보험도 보유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성호 외(2019)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수요를 측정하였으며, 소득과 연령이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및 저소득 계층일수록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적립하며 은퇴기간에는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고령화 적립금 방식의 도입을 동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2. 보험경제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된 보험경제이론 관련 연구는 주로 보험선택이론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보험선택이론은 보험계약자의 최적 보험선택을 이론적으로 다룬 것이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보험사기 적발 관련 연구였다.

가. 보험선택이론

이윤호(2003)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채널과 보험계약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자의 경제학적 선택이론을 연구하였다. 효용이론을 통해 고위험형 보험계약자는 오프라인 보험으로 전부보험을 선택하는 반면, 저위험형 보험계약자는 온라인 보험으로 일부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는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공정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기회제약선

가정하에서는 고위험·저위험 형태의 이질적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일괄균형(pooling equilibrium)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홍순구(2007, 2008)는 통계학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있는 순수한 보험위험과 외생적 배경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보험수요 관련 베르누이 원칙(Bernoulli principle)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을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해 기대의존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저자는 기대의존성이 기존의 회귀의존성과 사분의존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보험계약자는 음(-)의 기대의존성인 경우 초과보험을, 기존의존성이 없는 경우 전부보험을, 양(+)의 기대의존성인 경우 일부보험을 선택한다는 정리를 도출하였다(홍순구, 2007). 또한 저자는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을 추가로 적용하여 순보험료에 따른 전부보험 대신,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가 포함될 경우 일부보험을 선택하는 Mossin의 정리가 성립하는 충분조건도 도출하였다(홍순구, 2008). 그리고 이러한 충분조건하에 성립하는 Mossin의 정리가 손실위험에 대해 비례보험계약을 가정한 홍순구(2007)의 충분조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나.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보험사기

1)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다룬 초기 연구로는 조해균(1997), 안철경(2000) 등이 있다. 조해균(1997)은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보험범죄의 특성 및 추세와 보험회사 간 정보교환제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위험선별업무 수행도 강조하였다. 안철경(2000)은 도덕적 해이의 경제학적 의미를 비롯해 보험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기초한 파급효과와 방지비용 등 도덕적 해이 관련 다양한 경제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사례와 대응방안도 논하였다.

정보 비대칭성 관련 실증 분석 연구로 김헌수(2005)는 보험료 사기 행위, 허위입원 사기 행위, 차량수리 과다청구 행위와 같은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관련 태도·주관적 규

범·행동용이성·도덕적 책무를 포함하는 계획적 행위이론을 모형으로 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보험료 사기 및 차량수리 과다청구 행위는 계획적 행위이론 모형의 설명력이 높았으나, 허위입원 사기 행위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Lee(2008)는 혼합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역선택에서 도덕적 해이를 분리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김대환(2014)은 암보험을 대상으로 주관적 암 발생 위험도와 암보험 가입 간의 양(+)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암보험시장에서의 손해율에 대해 역선택 문제를 제기하였다.

2) 보험사기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다룬 연구로 김광용(1996)이 보험사기의 조기적발과 이를 위한 퍼지(Fuzzy)이론, AHP 척도, Rule Induction 등 인공지능(AI)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시스템 개발과 응용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김헌수(2003)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적발방법으로 지수모형이 아닌 관계(relation) 중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비통계적 링크분석(link analysis)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보험사기 공모집단을 찾기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자동분류방법에 해당하는 Emergent Group Algorithm과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는 노드(node)들을 연결한 Step Link 분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적발에 링크분석 기법이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3. 보험수리

보험수리학은 보험분야의 핵심 연구분야로 상당수의 연구들이 게재되어 왔다. 주된 내용은 생·손보 모두 보험상품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적정 요율산출 이론과 책임준비금 제도 등이라 할 수 있다.

가. 요율산출

1) 손해보험

1990년대 초반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요율자유화 관련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이봉

주, 1991; 신기철, 1991; 이해관, 1991; 조해균, 1991; 함상호, 1998).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요율산출 개선을 위한 연구는 주로 "① 적정수익률에 입각한 보험요율 정책, ② 신뢰할 만한 지급준비금 예측과 합리적 사업비, 이들과 보험료 간 매칭을 통한 합산비율 산정, ③ 보험종목이나 리스크 간 손해율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박승전, 1992). 이와 관련하여 이창수·강중철(1994)은 합리적인 요율산정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요율분류체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었다.

보험요율 자유화 추진에 따라 과학적인 손해보험 요율산출을 위하여 변동제한법, Buhlmann-Straub의 베이지안 추정법, 회귀모형에 따른 방법 등 다양한 신뢰도(credibility) 이론들이 제시되었다(최용석, 1994; 이창수, 1997).[2] 이강섭·이희춘(2001)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범위모수와 확률수준에 대해 경험적 베이즈(Bayes)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변동제한법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중철(2001)은 이상치(outlier)에 민감하지 않은 강건성(robust) 통계량을 이용한 신뢰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손실함수가 Tweedie's Compound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평균과 분산을 함께 고려한 이중일반화선형모형(DGLM)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요율 추정하는 연구가 있었다(최우석·한상일, 2008). 아울러 인구변화 등 거시적 환경변화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고서 관련 요율을 최적화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장봉규·최창희, 2016).

2) 생명보험

생명보험 사망률에 대한 연구로 전반적인 장래사망률 개선 추세와 함께 황지연·고방원(2016)은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Lee-Carter(LC) 모형과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해 장래사망률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장래사망률 개선 효과를 반영하여 기대여명의 사후확률밀도함수와 종신보험과 종신연금을 대상으로 보험수리적 현가를 산출하였다. Lee(2016)는 범용성과 최적화 측면에서 확률적 사망률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망률 예측에 대해 일반적 과정(GP: General Procedure)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

2) 신뢰도 기법은 경험데이터가 부족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보험요율 산출방법 중 하나로 특정집단의 보험확률 추정치와 전체집단 또는 유사집단의 보험확률 추정치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1983~2010년 간 우리나라 남성 사망률 통계를 이용하여 GP와 7개의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표본 내 적합도와 표본 외 예측력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GP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박규서·김세중(2018)은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 사망률 관련 보험위험을 조정,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LC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추세 및 변동성 위험을 모두 고려하면서 종신연금과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위험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져야 할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예정이율에 대한 연구로, 마승렬·박상범(2004)은 예정이율의 준거이율로 불안정시계열인 시장금리를 삼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상존하게 됨에 따라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다. 대신 이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2000년 이후 안정시계열의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준거이율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퇴직연금

퇴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명주·성주호(1997)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산출기초 설정, 연금자산의 재정방식, 상품개발 전략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이들은 확정급부(DB)형 상품의 경우 안정성을 목표로 경기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확정갹출(DC)형 상품은 다양한 투자운용상품 개발을 통해 근로자들의 투자선택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상품설계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 준비금

1) 책임준비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초기 연구로 평준순보험료식, Zillmer식, 해지환급금식, K율 방식 등 지급능력(solvency) 확보를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이론들이 소개되었다(이광봉·윤상, 1992; 정건영, 1995).

이상림·이원돈(2001)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제정된 새로운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표준책임준비금제도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회계상 미비점과 이에

따른 보험감독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확률적 현금흐름 모형을 대표적 생명보험상품에 적용하여 부채를 평가함으로써 표준책임준비금제도에 따라 평가된 부채와 비교하였다.

2) 최저보증준비금

변액보험 관련 최저보증준비금과 관련하여 주식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노건엽, 2012; 김융희·김창기, 2012; 유병학 외, 2013). 이 중 노건엽(2012)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현금흐름 산출을 위해 KOSPI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 산출 모형(LN, AR1, ARCH, RSLN2 모형)을 추정한 후 검정통계량, 기간별 누적수익률 분포, 역사적 데이터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모형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RSLN2 모형이 주식수익률 모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GMDB 현금흐름 평가와 관련하여 벤치마크 모형인 LN 모형과 RSLN2 모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김융희·김창기(2012)도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준비금을 평가하기 위해 KOSPI 로그수익률을 이용하여 GBM, GARCH(1,1), EGARCH(1,1) 모형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EGARCH(1,1) 모형이 최적임을 발견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저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수익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최저보증준비금을 과소추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4. 리스크관리

‘보험금융연구’에 리스크관리와 재무건전성 관련 연구가 다수 게재되었다. 먼저 일반적인 리스크관리이론과 보험의 역할을 다룬 연구가 있는데, 이 중 이순재(1996)는 리스크관리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금융시장 자유화,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문제 등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바라본 잠재적 리스크를 규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근창(1996)은 불완전한 시장요소에 따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활용한 기업가치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투

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보험가입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홍순구(2006)는 1·2차 확률지배이론을 이용하여 손실 관련 리스크의 증가 및 변화가 최적손실통제의 지출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 결과, 손실 관련 리스크의 기댓값이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위험회피형 리스크 관리자는 오히려 리스크 통제 관련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그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됨을 언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과 그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범하(1995)는 보험요율자유화 등 금융규제 완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환경과 준비금 방식 등 여러 지급여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용재(1996)는 손해보험회사를 위한 리스크관리 절차 및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지홍민(1998)은 선진금융시장의 금융기술을 소개하고,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변동리스크, 재투자리스크, 스프레드 확장리스크를 헤징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오평석(1999)은 금융환경변화에 맞춰 자산부채관리법(ALM), VaR기법, 할인현금흐름모형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리스크관리 기법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정 보험종목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조용운·조재린(2012)은 자동차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용 대인, 비개인용 대인, 기타로 구분하여 보험리스크 계수를 각각 추정한 뒤 이를 하나의 리스크 계수로 통합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감독지침과는 달리 이러한 통합 추정을 이용하여 리스크 간 분산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 리스크량 산출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송창길 외(2014)는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옵션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으로 주가지수와 연동된 인덱스연금의 Ratchet옵션을 통한 자연헤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헤징 방법을 통해 동적헤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Kim and Choi(2014)는 장래사망률 개선 등 사망률 리스크가 존재함을 밝히며, 이에 대한 헤징전략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존보험 판매 등 자연헤징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적 모형이 존재할 수 없으며, 사망률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확률적 사망률 모형이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오창수·박규서(2016)는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동적 해지율을 적용하여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최저이율보증(GMIB)과 최저해지환급금보증(GMSB)에 대한 이율보증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동적 해지율 적용으로 기본 해지율에 비해 GMIB와 GMSB의 가치가 낮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동적 해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형의 가정이 해지 시점에서 지급되는 GMIB와 GMSB의 부담을 미래로 이연시켰기 때문이라 하였다.

2000년대 들어 리스크관리가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나타났다. 이 중 Jeong(2001)은 미국이 아닌 세계 각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RBC), 레버리지 비율, 이윤율 관련 변수 등 보험회사의 재무적 특징이 해당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당 변수 중 지급여력변수(위험기준 자본금 대비 자본금)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정석영·류건식(2002)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평가 시스템과 그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관리 전략의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류건식·천일영(2003)은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예정이율리스크와 가격변동리스크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전통적 상품의 예정이율리스크가 크며, 부동산에 비해 주식의 가격변동리스크 계수가 크게 산출되었다.

박한구(2004)는 생명보험회사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을 도출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는데,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재무비율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선행연구와의 결과에서도 달라 경영환경변화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경국·최종범(2013)은 RBC 제도가 생명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RBC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압력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지급여력비율제도 때보다 더 빠르게 목표자본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석희(2016)는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지급여력비율 정보와 경영효율성 지표가 장부상 나타나지 않는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지급여력비율 정보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한 효율성 지표 모두가 해당 기업가치에 대해 설명력

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만, 해당 효율성 지표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 등 감독 목적 효율성 지표에 비해 설명력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5. 자산운용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다양한 주제의 이론 및 실증 분석을 다루었다. 자산운용 관련 이론적인 연구를 한 최창희(2014)는 RBC 제도 하에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수익률은 RBC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보험회사가 필요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자본운용의 효율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자산운용 관련 실증 분석 연구로는 최영목(2007)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 분석하였는데,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자산의 보유기간과 위험수준의 선택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 행태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과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장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았으며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보여 주었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희섭·조영현(2016)은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위험관리의 방법으로서 파생상품 운용의 효율성을 실증 분석하여 학술적인 기여를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파생상품 거래액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소형 보험회사일수록 위험회피 목적으로서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파생상품의 운용으로 파산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6. 보험회계

보험회계 관련 초기 연구는 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회계제

도의 개선방안을 논한 것이 다수였다. 이봉주·최상태(1991)는 금리자유화 등 경영환경이 변하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및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점증하는 분리계정의 필요성과 관련 회계처리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하였다. 이원희·정민근(1992)은 손해보험회계의 구조를 보험수입, 보험원가,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등 손해보험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회계제도를 주장한 김호중(1998, 1999)은 책임준비금, 보유유가증권, 자산재평가, 계약자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등 생명보험회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리계정하에 배당상품에서의 이익과 손실 책임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도록 분리계정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이 중 성주호(2002)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연금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 IAS 19호에 명시된 퇴직연금 회계처리기준을 바탕으로 계산기초, 적립방법, 연기금 부채 및 자산평가에 대해 계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류건식·이봉주(2009)는 2011년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국제 비교와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K-IFRS 도입으로 기업들의 연금부채 산출 시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변화가 반영되면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그 규모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았으며, 재무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연금 ALM 중심의 리스크 감독 규정 정비, 준비금 적정성 관련 감독기준 마련, 연금부채의 산출기준 적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험회계 관련 실증 분석 연구들도 있었는데, 심규영·이봉주(2001)는 손해보험회사 회계장부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 가진 정보가치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자들의 분석결과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정보적 가치가 기간과 하위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회계이익과 수정이익 등 이익변수에 대해 정보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의 경우 초과수익률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보적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창수(2017)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비용률을 추정하였다. 저자는 적정 자본비용률 추정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맞춰 마찰비용방식과 CAPM을 활용하는 자본비용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7. 보험규제 및 감독

보험규제 및 감독 관련 연구주제에는 퇴직연금과 소비자보호 등이 있으며, 이 중 다수의 연구들이 소비자보호에 집중되었다.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류건식·이태열(2004)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감독, 수탁자책임 규제감독, 재무건전성 규제감독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규제감독체계 수립에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규제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투자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단계적 투자규제 정책의 수립과 상시적 퇴직연금 운용 감독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탁자책임규제 측면에서는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투자교육 등 정보공시의 강화, 자주적 윤리규범 및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규제 측면에서는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 필요, 감독규제차원에서 지급능력비율제도제정, 연금회계기준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류건식·이경희(2008)는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해당 논문에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부담금갹출 의무화, 갹출비율 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급부액의 감액 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을 정비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조치사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들은 주로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즉,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나 설명의무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들을 실시하였다. 김선정(2002)은 일본사례를 이용하여 변액보험의 판매 시 변

액보험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판례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약 600건 이상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그는 설명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합성 원칙의 수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 원칙을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만큼은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우현(2010)은 독립법인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모집질서의 혼란, 지위남용의 문제, 소비자피해의 문제, 자격시험·교육제도의 불비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독립법인대리점의 발전과 보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자격시험·교육제도의 개선, 영업보증금의 현실화, 경유계약 방지, 부당한 지원 금지, 모집질서 위반의 경우 제재 실효성 도모, 투명성 확보와 자율적 통제장치 마련, 보수교육, 불완전판매율 공시, 수수료의 합리적 집행 근거마련, 감독의 미비사항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윤호(2010)는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법제화(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정도나 적합성의 원칙 등) 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서 학술적인 기여를 찾을 수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때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금융상품의 특징에 따라 입증책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세창·안철경(2018)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선진국인 영국, 미국, 호주의 소비자보호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국내 보험소비자의 피해 경감을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주최가 되어 학교 교육에 금융보험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품 및 채널의 개혁이 요구되며, 보수교육의 개편과 판매조직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8.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게재된 논문들은 주로 보험회사의 생산성 및 효율성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효율성 측정에서는 모수적인 방법론과 비모수적인 방법론이 사용되어 왔다. 모수적 추정방법의 경우 오차항의 분해가 가능한 유용성이 있으

며, 비모수적 추정방법은 함수의 형태에 대해 자유롭고 다산출물에 적합한 추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모수적인 방법론과 비모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기존의 효율성 연구들은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실증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신종각(2006)은 비모수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규모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외국계 보험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한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규모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홍민(2007)은 모수적 방법론인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사용하여 손해보험회사의 기술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의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케팅 채널 구성이 손해보험회사의 비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유가증권의 투자비중 확대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김재현(2008)은 산출물을 유해산출물(효력상실, 해약환급금, 대손충당적립금)과 유익산출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출물 그룹을 대상으로 비모수적 추정방법론인 BCC모델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의 추이는 두 모형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감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 감소폭이 외국계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양해일·이재복(2009)은 온라인 전용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 경영효율성,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모수적 기법인 자료포락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경영성과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의 산출물과 투입물을 선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면 4개의 온라인 전용보험회사 중 1개사가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그들은 온라인 전용보험회사들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경영 개선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중 손해보험의 영업손익 관련 언더라이팅 주기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도 있었는데, 김동훈·이기형(2001)은 보험요율자유화 이후 경쟁적 시장요인과 거시경제 요인이 손해보험의 언더라이팅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손해보험

종목별로 원수경과손해율(또는 합산비율) 자료에 AR(2) 모형을 사용하여 언더라이팅 주기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 다수의 종목에서 해당 주기가 측정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2002년 보험회사별 요율체계 도입과 함께 이러한 언더라이팅 주기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영목(2007)도 손해보험회사별 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언더라이팅 주기를 측정하였는데, 보험종목별로 패널 형태의 손해율 자료에 AR(2) 형태의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저자는 시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들 거시변수가 손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도 밝혔다.

보험회사 경영전략 관련 기타 연구로 먼저 정세창·송영효(2008)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카슈랑스의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초월 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 및 비용보상성 값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방카슈랑스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의 예상과 달리 생명보험회사에 비용보상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제휴 은행 수를 줄이는 경영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윤미·변혜원(2016)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다각화 전략이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 분석하였다. 상품 다각화 수준은 엔트로피 지수와 허쉬만-허핀달 지수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익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품 다각화의 수준이 낮을 경우 상품 다각화가 진행될수록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다각화가 진행된 경우는 다각화가 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보험영업전략과 판매채널 관리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보험산업은 OECD 가입과 같은 시장 개방과 요율자유화 등으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경영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설계사 중심의 채널전략에 새로운 채널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이 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보험금융연구’에도 보험산업 내 신채널

도입과 보험회사의 영업전략과 보험판매채널 관리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게재되었다.

가. 보험환경 변화와 신채널 제도

1990년대 금융시장 개방, 보험가격 자유화, 독립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도입, 소비자보호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채널전략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다. 박해춘(1994)은 이러한 당시의 환경변화에 대해 손해보험산업의 채널전략으로 모집조직 시스템의 확립, 타깃마케팅,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시장세분화 등을 강조하였다. 양희산(1994)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낙후된 보험판매조직을 지적하며, 이들의 다양화와 선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보험판매채널 사례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재호(1994)도 전문성 부족, 인위적인 임직원 모집제한 제도 등 당시의 보험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집조직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대리점 등 새로운 채널의 수용, 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중요함을 밝혔다.

신채널 중 보험중개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로 권영준(1996)은 보험중개인(broker)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와 중개인, 보험계약자와 중개인 간의 최적계약 문제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대리인 문제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에서 보수체계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해관(1997)은 손해보험의 구매자시장 관점에서 보험중개인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들을 통한 적극적인 보험마케팅을 강조하였다. 정성택(1998)은 생명보험에서 채널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험중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그 정착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비전속대리점 제도와 경영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이 중 석승훈(1997)은 독립대리점(GA) 제도 도입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전속대리점과 독립대리점 간 경쟁우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채널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세창(2000)은 영국의 방카슈랑스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며, 해당 채널의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판매활동에 초점을 맞춘 언더라

이팅 모형과 자금의 유입과 중개에 초점을 둔 중개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생산성을 측정한 후 금융산업 겸업화 정책과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세창 외(2015)는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사례를 통해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보험회사와 GA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차원에서 비전속대리점의 임원 자격 요건과 매출액 대비 자본금 등 재무적 요건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비전속대리점에 대한 평가기준과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시험 개선과 보수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나. 보험회사의 영업전략과 보험판매채널 관리

1) 보험회사의 영업 및 채널전략

보험회사의 영업전략 연구 중 상품개발 관련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이준호(1991)는 생명보험의 외형성장 위주 전략에 따라 판매구조가 저축성보험으로 편중되면서 이차손 등 경영효율 악화와 고객 니즈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패키지 상품, 투자형 상품, 무배당 상품 등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상래(1996)는 규제완화, 금리자유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정기초율 적용에 대한 노하우 축적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비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고객 니즈 변화에 부합하는 유니버셜 상품의 도입 시 기존 금리연동형 상품을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있다. 이 중 양희산(1998)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새로운 모집채널이 등장하는 보험영업 환경 속에서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채널의 적합성을 비롯해 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보험종목별로 채널이 가진 비용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채널 전략을 강조하였다. 정세창(2002)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보험종목별로 상품구입 시 고려사항과 채널선호를 결합하는 컨조인트 분석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응분석을 통해 표적고객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품에 대한 고려사항과 채널 간 결합 중요도가 보험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마케팅믹스 전

략 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서대교·황진태(2013)는 인터넷 발달에 따른 보험회사의 온라인 영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사업비율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에서의 온라인 채널 영업이 보유보험료 대비 순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비율을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널경쟁 심화에 따라 온라인 전업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근창·오기석(2017)은 생명보험 신계약에서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유지율에 대해 어떠한 채널이 적합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적합성 분석은 전체표본, 대형사·중소형사·외국사 등 보험회사 특성별, 대면/비대면 등 모집방법별로 이루어졌다. 전체표본의 경우 유지율에 대해 독립채널이 보다 적합한 반면, 보험회사특성별과 모집방법별 분석 결과는 전체표본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2) 보험판매채널의 성과와 관리

보험판매채널의 성과와 관리에 대한 연구 중 보험설계사의 특징과 영업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 오기석·우승찬(2004)이 보험설계사의 다양한 감성지능과 영업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러 감성지능 중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보험영업의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민 외(2019)는 보험설계사들의 고객관계형성 유형을 비즈니스 관계형성과 사회적 관계형성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고객들이 보험설계사와 장기적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고객몰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저자들은 비즈니스 관계형성이 고객몰입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보험판매채널 관리에 대한 연구로 한주희(2005)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설계사의 직무수행 관련 자율성 지각이 일-가족 갈등을 개선하는 반면, 직무수행 중 피드백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일-가족 갈등 인지가 이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직의향 수준도 높인다고 하였다. 정세창·안철경(2008)은 교차모집 제도와 관련하여 생·손보 보험회사별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교차판매

회사와 그 이유, 교차판매 시 선호 상품을 다중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차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였다. 전희주·안철경(2013)은 GA 채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사업모형 방향(판매중심형·재무설계형·네트워크형)에 GA의 판매상품 선택 기준, 핵심경영전략, 성장저해 요소, 정책과제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판매중심형 GA는 설계사 관리, 재무설계형은 재무설계서비스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형은 유지율 관리 및 전산서비스 구축과 관련이 많다고 하였다.

3) 보험소비자의 특징과 판매채널

보험소비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정홍주(1994)는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의 어떠한 속성을 중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응답 내용을 토대로 차량보험의 공제액 인상 여부를 평가하고, 보험계약이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계약변경비용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정세창·안철경(2003)은 T/M, C/M 등의 직판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 등 신채널에 대한 종목별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관련 시장점유율 예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채널 전환 이유는 주로 저렴한 가격과 사업자의 안정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신채널이 점진적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채널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황진태 외(2014)는 보험회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개선 노력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실험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품이해도를 평가하였으며,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핵심상품설명서의 개선 노력이 소비자의 상품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10. 손해사정

손해사정 관련 연구로는 주로 손해액 추정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나 또는 손해액 추정에 필요한 분포에 관한 연구주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 손해사정 관련 연구의 흐름이다. 기타 연구주제로 손해액 지급 관련 연구도 존재한다.

강기훈·기승도(2011)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사고유형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회사별 손해액과 사고유형 건수에 대한 자료(FY2004~FY2009)를 대상으로 선형혼합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고, 소형사고인 부상자수 및 분손 사고 건수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과 보유불명사고의 자기차량손해사고 할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조재훈·이근창(2013)은 손해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한 기댓값의 추정치로 산출된 보험료는 한계를 지니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벼운 꼬리분포(light-tailed)와 두터운 꼬리분포(fat-tailed)의 혼합분포 모형을 설정하고서 모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두터운 꼬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임계점도 동시에 추정하였는데, 이 때 베이지언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기존 대수의 법칙에 의존하여 산출한 보험료보다 혼합분포 모형을 통해 산출한 보험료가 10.5%의 위험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준 외(2017)는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분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넓은 변수 중 대표적인 '연령' 변수에 대해 그룹핑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령의 경우 그룹핑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고 1세 단위로 분류하는 방법이지만, 표본수가 적은 연령이 존재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도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그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동일 그룹의 포함 여부를 리스크의 추정값과 분산을 활용해 판단하고 추정하는 Stopping Rule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룹핑 방식을 단순 그룹핑 방식, 비율방식, 이동평균법, 평활 스플라인, Stopping Rule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Stopping Rule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마승렬(2002)은 손해배상액의 지급방법 측면에서 정기금 지급방법이 일시금 지급방법보다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보험회사에게도 정기금 지급방법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지급계획은 손해배상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11. 기타

보험분야의 기타 연구주제들은 건강보험과 연금상품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 관련 연구들은 건강보험의 비용 문제라든지 민영보험 가입과 특정 질병의 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오영수(2006)는 건강 관련 리스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 모형과 국제사례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 가계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두 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기초통계확보 및 위험률 산출 통계 공유, 역선택 축소를 위한 질병정보 교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험금 심사제도 개선, 세제혜택 부여 등 민영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대환(2015)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4대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기타 중증질환 간의 건강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4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131.3%, 기타 중증질환은 151.2%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비급여 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적 의료들을 점진적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송희·김융희(2019)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당뇨 유병자의 건강관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보험가입 여부와 운동 및 식생활 관리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걷기 및 근력운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 유병자들이 권장량으로 섭취해야 될 탄수화물과 지방질의 기준을 충족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 관련 연구들로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상품을 다룬 논문들이 존재한다. 김원식(2012)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금은 상호연관성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도입되어 유기적인 운영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기초급여는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비례급여는 확정기여형 운영으로 하는 혼합형 국민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모형에 대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적용제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김헌수·최기홍(2014)은 한국노동패널과 국민연금 이력자료를 소득분위별로 결합하여 예상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상기 자료로 추정된 예상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이 노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표준화된 평균 기본연금액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0.327과 35.6%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기대연금 자산이 개인의 노후자산에 대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경희·김세중(2019)은 수익률 및 수수료를 중심으로 연금저축상품의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그간 자료의 한계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가 미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상품특성이 유사한 177개의 연금저축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수수료와 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2. 비보험 기타 연구

‘보험금융연구’에는 보험 분야 외에도 기타 금융 및 거시경제 관련 연구들도 다수 게재되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연구가 금융시장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을 비롯해 거시경제 일반과 통화정책 등 화폐금융 관련 이슈들도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가.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 관련 연구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 중 최우석·한상일(2010)은 상·하한가 등 가격제한폭 제도로 가격발견 기능이 지

연되어 주식시장 내 초과수익의 기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우백·김종오(2011)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거래에 따라는 가격발견 기능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거래에 해당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의 가격발견 기능이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KOSPI200 글로벌 야간시장 등 주문주도형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이우백·우민철, 2013).

채권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로 원승연·한상범(2009)은 차익거래가 금리스왑 스프레드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채권 및 금리스왑 시장에서 금리스왑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차익거래 제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내영 외(2016)는 기간별로 주가지수·국가 CDS 스프레드·변동성 지수 간 선·후행 관계를 분석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기간에 비해 2007~2008년 금융위기 동안 변수 간 선·후행 관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시 체계적 위험 관련 정보의 전이속도는 왕성하게 나타나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보의 전이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 시장이 비효율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헌수 외(2002)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변동성 예측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비모수적 방법인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해 역사적 변동성 모형과 GARCH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는 등 인공신경망 모형의 주식시장 변동성 추정과 예측력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우백(2015)은 파생상품 관련 규제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KOSPI200옵션시장의 거래 승수 인상에 따라 거래 감소와 함께 일중 조건부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변동성에 기초한 투기적 매매가 축소됨을 함의한다고 하였다.

2) 금융시장의 변동성

금융시장 가격 변동성에 대한 장기 기억(long memory)의 존재 여부를 추정한 연구들도 있다. 이 중 Kwon(2010)은 미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변동성의 장기 기억을 추정하였

는데, 금융시장 내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가 장기 기억을 증폭시키나, 이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장기 기억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Han(2011, 2019)은 원·달러 환율과 암호화폐 수익률 변동성에 장기기억이 존재함을 추정하였다. 원·달러 환율 수익률의 경우 점프현상과 구조적 변화를 함께 고려한 FIGARCH 모형을, 암호화폐 수익률에서도 베르누이 점프현상을 고려한 FIGARCH 모형을 사용하였다. 암호화폐 수익률의 경우 점프현상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암호화폐 수익률에서 유의한 장기기억 변동성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 간접투자시장의 성과

간접투자시장에 해당하는 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이 중 지홍민·권수연(2006)은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DEA 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효율성 편차가 낮은 반면, 혼합형은 펀드 간 운용 및 판매보수, 수익률에 따라 펀드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고광수·하연정(2008)은 펀드의 성과와 수탁고 간 관계와 관련하여 펀드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위험선택 전략이라는 토너먼트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바로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간 대리인 문제로 공모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윤봉한·이세우(2011)는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특성과 그 성과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펀드 총자산, 현금흐름, 운용기간은 펀드성과에 양(+)의 관계를, 좌당 순자산가치, 상대 보유비율, 주가수익비율(PER)은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4) 금융자산 투자결정

임병인·윤재형(2016)은 소득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를 실증 분석하였다. 가구의 부(富)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위험금융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투자자의 건강상태와 자산포트폴리오 간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창우·전성주(2016)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상관임의효과 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투자결정 시 건강상태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1) 기업 지배구조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전선애·이민환(2008)에 의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경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운영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예상부도확률도 낮았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주주 경영이 책임경영의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경영자에 대한 경영감시와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잘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지혜·변희섭(2013)도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위험추구 행태와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비경쟁적 상품시장에서만 관찰되는데, 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주는 규율 효과로 지배구조를 통한 경영효율화 영향력은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법인소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여신집중도를 실증 분석한 하성수·김학건(2020)은 최대주주 유형이 법인인 경우 여신집중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 유형이 법인일지라도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며, 해당 저축은행에 근무한 경험도 있다면 여신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연구로 이지혜·변희섭(2013)은 지배주주의 직접지분의 경우 기업가치 극대화 유인이 작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계열사 지분 등 간접지분은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계열사를 통한 사적효용 추구가 강해져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출이 지배주주의 사적효용 추구에 전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강상구 외(2015)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를 실증 분석하여 경제정의지수(KEJI)로 측정된 기업의 사회적 활동 수준이 미래의 주가급락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호·조수미(2020)는 복점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여부와 상품대체성에 따라 해당 기업의 R&D 리스크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소비자후생을 기업가치로 인식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한 후 일반 사기업

과의 생산량(꾸르노) 및 가격(베르뜨랑) 경쟁 게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다. 거시경제 및 화폐금융

1) 거시경제

다양한 거시경제 관련 연구들도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되었다. 이 중 Chung and Lee(2001)는 우리나라 1975.9~1999.1 기간 동안의 명목이자율(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간 장기 관계(피셔효과)를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면서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피셔효과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국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국면은 피셔관계가 성립하는 부분이며, 나머지 국면은 명목이자율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저자들은 후자 국면에 대해 피셔관계에 조세효과가 포함됨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침체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이항용 외(2009)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포함된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기침체의 국가 간 전파경로와 그 강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이 발견한 내용은 경기침체의 국가 간 전파는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통합추세에 따라 경기침체의 국가 간 전파가 1997년 이후 보다 뚜렷해졌다고 하였다.

거시경제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주택시장 관련 연구도 있는데, 임병인·강성호(2010)는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소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임태준(2020)은 주택시장의 경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능력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벤치마크 모형경제에 대해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중소기업의 담보대출상한을 하락시켜 이들의 생산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대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나, 경제 전체 생산량은 하락한다고 하였다.

2) 화폐금융과 통화정책

화폐, 은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슈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중 Choi(2009)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 관련 모형인 Cash-In-Advance 모형을 구축하였다.

저자는 이 모형에서 현금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뿐 아니라 신용카드의 거래비용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정부(또는 중앙은행)는 신용카드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후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프리드만 규칙(Friedman rule)이 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다룬 연구들도 다수 있었는데, Jun(2011)은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미국과 독일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저자는 환율안정을 목표로 한 중앙은행의 정책효과가 그 개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Yoo(2014)는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실증 분석하여 통화정책의 장기적 유효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자율 변동에 대한 단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서 벗어난 통화정책이 실시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도 주장하였다. Hur(2020)는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사용하여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 통화정책 충격을 정확히 전망할수록 거시경제 변동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효과를 다룬 연구로 주동헌(2014)은 중앙은행의 기존 통화정책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경기대응적 완충자본(CCB) 등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간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 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공조적 정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저자는 2017년 연구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대상으로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 공표가 주는 정책적 효과도 추정하였다. 그 연구에서 저자는 뉴케인지언 DSGE 모형에 포워드 가이더스 퍼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BOKDPM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포워드 가이던스의 정책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주동헌, 2017).

김기호·유경원(2015)은 우리나라 지역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의 지역별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별 효과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사라진다고 하였다. 통화정책 초기 발생한 지역별 차이는 금리민감산업 비중, 중소금융기관 비중, 비은행 금융회사 비중, 지역 간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에 해당하는 무수익여신(NPL)이 증가하는 이유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이인로·이웅기, 2018).

Ⅳ. 결론

‘보험금융연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보험 관련 이론 및 실증 분석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보험 금융 분야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보험을 근간으로 금융시장 관련 주제를 포함하는 학술지로 발전하였다. 본고는 2020년 8월 ‘보험금융연구’ 창간 제100호를 발간하면서, 그동안 ‘보험금융연구’에서 다루어 온 연구를 주제별로 나누고 그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지가 보험학계와 산업에 기여한 점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향후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9.12~2020.7 기간 동안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보험수요부터 비보험 분야 연구까지 총 12개의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2000년까지 경영전략, 보험규제 및 감독 분야가 ‘보험금융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온 주제로 나타났다. 21세기 들어서는 보험수요와 보험수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총 566개의 다양한 논문이 ‘보험금융연구’에 게재되어 왔지만, 학문적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보험경제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론적 연구가 그간 부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적 연구가 중요하므로 향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보험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풍부한 통계자료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증 분석 연구들은 해당 논문에서 통계자료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다양한 보험통계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연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불가결하며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기훈·기승도 (2011),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고유형별 손해액 탄력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pp. 3-32.

강내영·박윤정·현정순 (2016),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주가지수, 국가 CDS 스프레드 및 변동성지수 간의 선·후행 관계",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4호, pp. 3-41.

강상구·김학순·임현일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가급락 위험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4호, pp. 113-139.

강성호·김대환·이순재 (2019), "고령층의 민영건강보험 수요결정요인과 잠재적 수요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1호, pp. 107-140.

강중철 (2001), "로버스트 신뢰도모형", **보험금융연구**, 제12권 제3호, pp. 135-155.

고광수·하연정 (2008),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토너먼트 현상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pp. 209-228.

권영준 (1996), "보험 Broker제도의 Agency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7권 제1호, pp. 115-126.

권용재·윤정선·이재민 (2012), "경제변수가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4호, pp. 3-28.

김광용 (1996), "보험사기의 조기적발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 퍼지 이론과 AHP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7권 제2호, pp. 4-28.

김기호·유경원 (2015),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4호, pp. 3-37.

김대환 (2014), "암 위험인식과 암보험 가입: 역선택 가능성",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4호, pp. 35-62.

______ (2015),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2호, pp. 85-107.

김동훈·이기형 (2001), "국내손보산업의 언더라이팅주기 분석 및 시사점", **보험금융연구**, 제12권 제2호, pp. 3-34.

김명준·이상준·김영화 (2017), “Stopping Rule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위험집단 구분 및 적정 손해 수준 추정”,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1호, pp. 3-32.

김선정 (2002),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부당설명한 보험자의 법적책임: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1호, pp. 21-71.

김송희·김융희 (2019), “민영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당뇨 유병자의 건강관리 차이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1호, pp. 39-69.

김용재 (1996), “손보사의 위험관리 이론과 기법”, **보험금융연구**, 제7권 제3호, pp. 103-118.

김원식 (2012),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4호, pp. 61-98.

김융희·김창기 (2012), “주가수익률 추정 모델 선택에 따른 변액 연금 최저보증준비금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4호, pp. 99-131.

김재현·김헌수 (2006),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품정보 획득특성과 만족도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1호, pp. 71-102.

김헌수 (2003), “비통계적 링크분석을 활용한 보험사기의 효과적 적발방법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2호, pp. 107-146.

______ (2005),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2호, pp. 77-117.

김헌수·김광용·정대용 (2002),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KOSPI 200 선물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3호, pp. 155-176.

김헌수·최기홍 (2014), “국민연금 연금자산이 개인의 예상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추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4호, pp. 3-34.

김현민·전희주·박찬욱 (2019),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보험영업사원의 고객관계형성 유형이 고객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4호, pp. 87-112.

김호중 (1998),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생명보험회계제도 개선방향”, **보험금융연구**, 제9권 제3호, pp. 79-104.

______ (1999), “신회계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보험금융연구**, 제10권 제2호, pp. 3-41.

남윤미·변혜원 (2016), “상품 다각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2호, pp. 111-143.

노건엽 (2012),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 평가시 확률변동성 특성을 통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 적용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1호, pp. 3-34.

류건식·이경희 (2008),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비교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1호, pp. 3-41.

류건식·이봉주 (2009),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 비교 및 영향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1호, pp. 75-105.

류건식·이태열 (2004),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보험회사의 인식실태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5권 제2호, pp. 37-69.

류건식·천일영 (2003),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율 및 가격변동리스크평가”,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1호, pp. 3-33.

마승렬·박상범 (2004),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5권 제3호, pp. 3-29.

박경국·최종범 (2013),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의 도입이 생명보험회사의 자기자본, 자산리스크 몇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pp. 3-32.

박규서·김세중 (2018), “국제회계기준(IFRS17)하에서의 사망률 위험조정 평가”,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4호, pp. 63-90.

박상래 (1996), “자율금리환경하에서의 생보상품운영 방안”, **보험금융연구**, 제7권 제1호, pp. 103-114.

박승전 (1992), “손해보험 요율산출의 개선방안”, **보험금융연구**, 제3권 제2호, pp. 113-117.

박한구 (2004), “생명보험회사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5권 제2호, pp. 3-36.

박해춘 (1994), “가격자유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손해보험 마케팅 전략”, **보험금융연구**, 제5권 제2호, pp. 90-105.

변희섭·조영현 (2016),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과 경영성과”, **보험금융연구**, 제

27권 제3호, pp. 81-115.

서대교·황진태 (2013),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가격효과: 사업비율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pp. 89-111.

석승훈 (1997), “독립대리점제 도입의 보험시장에의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8권 제1호, pp. 133-146.

성주호 (2002), “국제기업 연금회계기준의 연금계리적 평가”,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2호, pp. 115-141.

송창길·이창수·허연 (2014), “인덱스연금 판매를 통한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의 자연헤징 효과에 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1호, pp. 75-107.

신기철 (1991), “손해보험 요율체계의 현황 및 자율화방향”, **보험금융연구**, 통권 제2권 제3호, pp. 43-63.

신종각 (2006), “생명보험회사의 설립형태 및 규모별 생산성 변화추이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1호, pp. 3-34.

심규영·이봉주 (2001), “비상위험준비금의 정보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2권 제3호, pp. 39-65.

안철경 (2000), “모럴해저드의 경제학적 이해 및 효과적 대응수단 연구: 법제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11권 제1호, pp. 35-73.

양해일·이재복 (2009), “온라인전용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pp. 121-159.

양희산 (1994), “주요국의 보험판매조직에 관한 비교연구”, **보험금융연구**, 제5권 제2호, pp. 15-41.

______ (1998), “보험마케팅채널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9권 제1호, pp. 61-86.

여윤경·이남희 (2012), “개인연금자산의 수요와 적정성에 관한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3호, pp. 63-93.

오기석·우승찬 (2004), “감성지능과 보험설계사의 영업성과에 관한 소고”, **보험금융연구**, 제15권 제1호, pp. 97-119.

오영수 (2006),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1호, pp. 103-136.

오창수 (2017), "국제회계기준하의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4호, pp. 127-178.

오창수·박규서 (2016), "국제회계기준(IFRS4)하에서의 이율보증평가: 동적해지율 적용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1호, pp. 51-79.

오평석 (1999), "신금융기법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보험금융연구**, 제10권 제3호, pp. 61-92.

원승연·한상범 (2009), "스왑 스프레드 역전 현상과 채권시장의 효율성: 현물 매수 차익거래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3호, pp. 97-124.

유병학·고방원·권혁성 (2013), "베이지언 통계기법을 이용한 변액연금 보증준비금의 평가",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3호, pp. 3-26.

윤봉한·이세우 (2011), "국내 주식형펀드의 특성과 펀드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pp. 67-107.

이강섭·이희춘 (2001), "경험적 베이즈 신뢰도 모델의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한 실증적 고찰: Buhlmann-Straub의 경험적 베이즈 신뢰도 모델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12권 제1호, pp. 59-89.

이경룡 (2002),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이경희·김세중 (2019), "연금저축상품 성과 분석: 수익률 및 수수료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3호, pp. 33-69.

이광봉·윤상 (1992), "생보사 책임준비금 규제에 대해서", **보험금융연구**, 제3권 제2호, pp. 139-153.

이근창 (1996), "위험관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7권 제1호, pp. 41-52.

이근창·오기석 (2017),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보험회사특성별·보험모집방법별 유지율기준 적합성분석: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1호, pp. 63-95.

이명주·성주호 (1997), “퇴직연금보험의 상품개발전략”, **보험금융연구**, 제8권 제3호, pp. 43-60.

이봉주 (1991),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적립 패턴과 요율자율화”, **보험금융연구**, 제2권 제1호, pp. 84-98.

이봉주·최상태 (1991), “분리계정과 금리자유화”, **보험금융연구**, 제2권 제3호, pp. 127-151.

이상림·이원돈 (2001), “생명보험회사의 부채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2권 제1호, pp. 3-27.

이상호·조수미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품차별화된 시장의 R&D 리스크 선택”,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1호, pp. 53-86.

이순재 (1996), “리스크관리 이론의 발전과 현황: 역사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7권 제2호, pp. 29-40.

이우백 (2015), “거래승수 인상에 따른 일중 KOSPI200 옵션거래활동과 현물 시장 변동성간의 관계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3호, pp. 3-56.

이우백·김종오 (2011), “한국주식시장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가격발견 비교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4호, pp. 109-147.

이우백·우민철 (2013), “KOSPI200선물 글로벌 야간시장에서 주문집계장의 가격발견”,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pp. 99-139.

이원희·정민근 (1992), “손해보험회계의 회계이론적 고찰과 개선방향”, **보험금융연구**, 제3권 제2호, pp. 80-99.

이윤호 (2003), “정보가 비대칭하는 보험시장에서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보험의 경쟁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자동차보험시장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3호, pp. 3-26.

______ (2010),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pp. 79-103.

이인로·이웅기 (2018), “무수익여신 상승률의 결정요인과 실물 경제로의 전달 효과”,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2호, pp. 3-37.

이재호 (1994), "손해보험 모집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보험금융연구**, 제5권 제2호, pp. 4-14.

이준호 (1991), "생명보험의 상품개발방향", **보험금융연구**, 제2권 제3호, pp. 81-87.

이지혜·변희섭 (2013), "지배주주는 언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가?",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4호, pp. 31-74.

__________ (2015), "지배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위험추구행태: 경쟁위협의 규율효과",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3호, pp. 95-139.

이창선 (2020), "주관적 기대수명에 다른 성별 개인연금 수요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2호, pp. 95-122.

이창수 (1997), "신뢰도기법을 이용한 자료의 충분성 평가와 보험요율의 조정", **보험금융연구**, 제8권 제2호, pp. 121-136.

이창수·강중철 (1994), "자동차보험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5권 제3호, pp. 121-136.

이창우 (2010), "개인의 민영건강보험과 개인연금 선택간의 관계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pp. 37-65.

이창우·전성주 (2016), "건강상태가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4호, pp. 43-74.

이항용·홍기석·홍유화 (2009), "경기침체의 국가간 파급경로: GDP, 국내신용,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3호, pp. 125-160.

이해관 (1991), "손해보험요율의 자율화와 그 대응책", **보험금융연구**, 제2권 제2호, pp. 35-42.

_____ (1997), "손해보험 중개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8권 제2호, pp. 64-81.

임병인·강성호 (2010), "주택관련대출의 가계소비 구축효과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pp. 109-142.

임병인·윤재형 (2016), "소득계층별 위험금융자산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1호, pp. 3-22.

임태준 (2020), “주택수요 감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대출형태 변동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2호, pp. 25-58.

장봉규·최창희 (2016), “인구변화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요율 최적화”,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2호, pp. 81-109.

전선애·이민환 (2008),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pp. 229-261.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1호, pp. 137-168.

전우현 (2014),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특히 독립법인대리점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pp. 67-108.

전희주·안철경 (2013), “일반화 로짓과 대응분석을 이용한 GA사업모델 방향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pp. 139-168.

정건영 (1995), “장기손해보험의 준비금 적립방안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6권 제1호, pp. 92-111.

정석영·류건식 (2002), “보험회사의 수평적 리스크관리 평가체제 분석: RAS식 설문조사 방식을 기초로”,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2호, pp. 77-114.

정성택 (1998), “보험회사 보험중개인제도 활성화방안”, **보험금융연구**, 제9권 제1호, pp. 118-132.

정세창 (2000), “영국 생명보험산업 및 방카슈랑스의 규모의 경제와 비용 보완성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1권 제1호, pp. 3-33.

______ (2002), “보험종목별 소비자의 컨조인트 선호 분석과 표적고객”,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2호, pp. 43-76.

정세창·김은경·김헌수 (2015),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4호, pp. 39-75.

정세창·송영효 (2008), “방카슈랑스 효과와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2호, pp. 33-53.

정세창·안철경 (2003), “신채널 규모 예측과 소비자 만족도 및 채널선호 원인 분석을 통

한 보험판매채널 전략",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3호, pp. 27-65.

__________ (2008), "교차모집에서 설계사의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pp. 59-82.

정재욱·김재현 (2008),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2호, pp. 109-135.

정홍주 (1994), "자동차보험 소비자조사와 마케팅전략(I)", **보험금융연구**, 제5권 제1호, pp. 38-61.

조석희 (2016),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경영효율성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pp. 117-154.

조용운·조재린 (2012), "자동차보험의 확률론적 통합보험리스크 실증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1호, pp. 59-100.

조재훈·이근창 (2013),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극단값 혼합분포의 베이지언 추정",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pp. 71-98.

조해균 (1991), "손해보험요율의 자율화와 그 대응방안", **보험금융연구**, 제2권 제3호, pp. 7-34.

_____ (1997), "생명보험 Moral Risk 관리방안", **보험금융연구**, 제8권 제3호, pp. 61-87.

주동헌 (2014),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정책공조 효과 평가",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2호, pp. 33-71.

_____ (2017), "한국경제에서 Forward Guidance 정책효과 추정방안 모색",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2호, pp. 3-36.

지범하 (1995), "생명보험경영과 지급여력 확보방안", **보험금융연구**, 제6권 제1호, pp. 86-108.

지홍민 (1998), "금융기술의 발전과 리스크관리기법", **보험금융연구**, 제9권 제1호, pp. 39-60.

_____ (2007), "확률적 프론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2호, pp. 3-44.

지홍민·권수연 (2006), “DEA방법을 이용한 수익증권의 효율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2호, pp. 99-130.

최영목 (2007), “동태적패널모형을 이용한 손해보험의 위험인수주기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2호, pp. 45-78.

_____ (2007),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 결정요인”,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3호, pp. 37-67.

최영목·최원 (2008),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pp. 3-36.

최용석 (1994), “신뢰도(Credibility)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5권 제1호, pp. 136-151.

최우석·한상일 (2008), “이중일반선형모형(DGLM)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요율 추정”,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pp. 37-57.

___________ (2010), “가격제한폭의 가격발견지연효과 및 이를 고려한 투자패턴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pp. 143-166.

최창희 (2014), “RBC를 고려한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최적화”,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2호, pp. 3-32.

하성수·김학건 (2020), “법인소유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여신집중에 미치는 영향: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2호, pp. 3-23.

한주희 (2005), “보험설계사의 직무동기와 직무특성이 일-가족 갈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3호, pp. 3-31.

함상호 (1998),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도입방향과 손해보험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9권 제2호, pp. 82-101.

홍순구 (2006), “확률지배이론으로 분석한 위험성의 증가와 최적손실통제”,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2호, pp. 3-40.

_____ (2007), “기대의존성과 다수위험하의 베르누이원칙”,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2호, pp. 79-114.

_____ (2008), “자기부담금 보험계약과 Mossin 정리: 자산가치변동위험과 손실위험이

공존하는 경우",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2호, pp. 3-32.

황지연·고방원 (2016), "포아송 로그-이중선형 모형을 이용한 한국 남성 사망률의 베이지안 추정 및 활용",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1호, pp. 23-49.

황진태·변혜원·김해식 (2014),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 개선효과 추정: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1호, pp. 3-27.

황진태·서대교 (2019), "종신보험 해지율과 거시경제변수 간 장기 시계열 관계에 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1호, pp. 3-38.

Choi, H. (2009). "Money, Credit, and Opportunity Cost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0(2):229-257.

Chung, S., and J., Lee (2001). "The Long-Run Fisher Effects in Korea",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12(1):121-142.

Han, Y. (2011). "Potential Sources of the Long Memory Property in the Volatility Process of Daily KRW-USD Exchange Rates: Jumps and Structural Break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2(1):137-163.

______ (2019). "Long Memory Volatility and Bernoulli Jumps in Daily Crypto Currency Price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30(3):109-138.

Hur, J. (2020).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Unanticipated Future Monetary Policy Shock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31(1):3-52.

Jeong, J. (2001). "An Application of the RBC Requirements to P/L Insurer Insolvencies Worldwide",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12(1):91-119.

Jun, J. (2011). "Noise Trading Channel and Timing of Effective Central Bank Intervention",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2(1):109-136.

Kim, C., and Y., Choi (2014). "A Method of Hedging Mortality Risks in Endowment Product Development",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5(2):73-109.

Kwon, Y. (2010). "Long Memory and Structural Breaks in Extreme Value

Estimators: The Case of the U.S. Stock Indexe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1(1):187-237.

Lee, S. (2016).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General Procedure for Forecasting Mortality",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7(1):107-133.

Lee, Y. (2008). "Testing for the Presence of Moral Hazard in the Automobile Insurance Market Using the Mixed Proportional Hazard Model",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19(2):137-159.

Yoo, J. (2014). "Hidden Effect of Monetary Surprises on US Unemployment",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25(4):63-98.

Abstract

This report is prepared for commemoration of publication of the 100th issue of the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It is a summary of research trends over the past 30 years published in this journal. A total of 566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1st issue in December 1990. Twelve categories of research subjects are identified and major studies in each category are briefly surveyed to provide ideas on historical research trends. Form the inception in 1990 to 2000, most extensively investigated are those issues as to business strategy, regulation, and solvency under the environment of deregulation and market opening. Since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papers on insurance demand and actuarial aspects of insurance tend to be dominant. In the future, more theoretical research on insurance economics is required and particularly needed is a research infrastructure to procure data for diverse and sophisticated empirical research in the area of insurance.

※ Key word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Research Review, Commemoration of the 100th Issue